

경기침체 그늘에 중고차시장 냉기… 국내·수입 시세 ‘뚝뚝’

반도체 수급난 영향 상반기 호황 3高 지속에 하반기 시장상황 급변 수요·공급 감소… 가격하락 본격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호황기를 맞았던 중고차 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얼어붙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중고차 시장은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기 차종의 경우 중고차 값이 신차 가격을 넘어서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과 반도체 수급 안정화로 신차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요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중고차 거래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입차 가격은 눈에 띄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모바일 중고차 플랫폼 첫차에 따르면 2018년식 주행거리 7만km 이하의 중고



지난달 4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

차를 기준으로 판매량 상위 10종 모델을 국산차와 수입차로 나눠 분석한 결과 BMW 5시리즈 7세대와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5세대는 각각 전월대비 시세가 2.2%, 2.4% 하락했다.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4세대도 전월과 비교해 2.0% 내렸다. 이 외에도 포드 익스플로러 5세대는 전월 대비 3.2%, 아우디 A6 4세대는 0.9% 떨어졌다. 메르세

데스-벤츠 S클래스 6세대, 폭스바겐 티구안 2세대는 판매시세가 각각 0.1%, 0.8% 오르긴 했지만 상승률이 미미했다.

국산 중고차도 일부 차종의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인기 미니밴인 기아 올뉴 카니발의 경우 중고차 시세가 전월 대비 4.2% 내려갔다. 현대차 아반떼 AD도 1.3% 시세가 하락했다.

이 때문에 중고차 업계도 생존을 위

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 숫자는 지난 3월 3만6031명에서 6월 3만5276명, 9월 3만4715명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 침체기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부터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중고차 사업에 본격 진출

한다는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악성 중고차 딜러들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로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대기업 진출을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한길리서치에 20~6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완성차 업체의 인증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8.6%가 찬성했다. 또 중고차 시장 인식에 대해서는 79.9%가 중고차 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원인은 54.4%가 '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응답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높아진 물가와 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부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경우 시장 전체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 C&C, 'MyRPA' 사업 완료

드리고 기반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확산

자회사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오입력 등 휴먼에러 원천 차단

SK(주)C&C가 구매, 재무, 마케팅 등 기업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연결해 기업 구성원 누구나 자신만의 RPA 봇을 추가·삭제·변경할 수 있는 종합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DWP) 확산에 나간다.

SK(주)C&C는 9일 종합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드리고(DREAGO)'를 기반으로 SKC 및 자회사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확산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myRPA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SK(주) C&C는 SKC를 비롯해, SK네트워크, SK picgloba l, SK피유코어(SK pucore), SKC솔루션스 등 SKC 자회사 4곳을 대상으로 구매, 재무, 마케팅, 생산, 출하분야 업무 자동화 및 DIY RPA 확산을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SK(주) C&C는 먼저 SKC 및 자회사



SKC myRPA 완료 보고회
SK(주) C&C는 9일 종합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드리고(DREAGO)'를 기반으로 SKC 및 자회사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확산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myRPA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매 업무를 분석해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을 제외한 22개 구매 전 업무에 걸쳐 자동화를 진행했다.

구매 요청 접수부터 구매 발주, 계약 품의, 상품 수령,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대금 지급까지 모든 구매 업무에 RPA 를 적용했다.

RPA 적용 후 사람이 직접 처리했을 때와 비교해 소요 시간을 연간 6,806시

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구매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재료 시황 정보도 자동으로 수집하고, 시스템 오입력, 업무 누락 등 휴먼 에러(Human Error)도 원천 차단했다. 이를 통해 SKC 구성원들이 단순 반복적인 운영 업무에 할애하던 시간이 줄었으며, 기획이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등 보다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DIY RPA 봇 활용 확산 및 관리는 '드리고' 플랫폼이 맡는다.

드리고는 개발 지식이 없는 현업 담당자라도 간단한 교육을 통해 드래그 앤 드롭(Drag & Drop) 방식으로 사무 업무 자동화를 셀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드리고는 기존 RPA 1개 봇이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다수 봇을 연계해 복잡하고 중요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韓美 현안 논의

세계질서 변화, 경제 안보 등 의견 나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오랜 지인인 에드윈 풀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 연구센터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9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풀너 회장을 만나 만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에드윈 풀너 회장이 자유 시장경제와 한미동맹 등을 모색하는 국내 포럼 참가를 위해 방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김승연 회장과 풀너 회장은 글로벌 경제 및 외교 현안, 한미 우호관계 증진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만찬에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 한화솔루션 김동관 부회장, 차남 한화생명 김동원 부사장, 삼남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김동선 전무도 참석해 김승연 회장과 풀너 회장이 나눈 대화 중 세계질서 변화와 경제 안보 등에 대해 관심 있게 경청했다. 미국 내 최고의 아시아 전문가이자 전한파로 알려진 풀너 회장과의 환담은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김승연 회장은 올해 에드윈 풀너 회장과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을 만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활발한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연 회장과 에드윈 풀너 회장의 돈독한 친분은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40여년 간 이어지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간 협력은 물론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는 사이다.

/양성운 기자

"PASS로 주민등록증 확인 받으세요"

이통3사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 확인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통신 3사는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통해 민간 최초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를 PASS 앱에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통신 3사는 10일 부산 베스코에서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개막식 행사를 통해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정식으로 대중에 공개한다.

PASS에 탑재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간 사업자 최초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다.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GV, 식당 등 일상 생활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및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권 구매 및 탑승 시 신분 확인에 이용 가능하다.

또한,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체운정 기자